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락재산의 대부분을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리스크관리팀에서 금융공학기법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 확립,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제공 및 운용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용업무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 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221억 원

펀드유형 주식형
-주식 편입비 :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04년 12월 21일)

- 클래스 A : 2010년 08월 12일
- 클래스 A-E : 2014년 06월 11일
- 클래스 C-E : 2012년 02월 13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 : 2015년 08월 20일
- 클래스 C5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S : 2014년 04월 22일
- 클래스 S-P2 : 2017년 05월 23일

벤치마크 KOSPI 100%

신탁업자 SC제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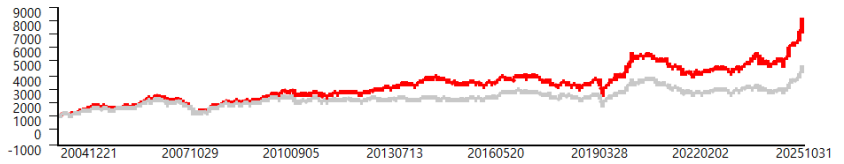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18.69%	29.88%	60.67%	66.50%	102.19%	105.50%	119.71%	717.60%
클래스 A	18.55%	29.41%	59.50%	63.92%	95.85%	95.72%	102.36%	196.01%
클래스 A-E	18.59%	29.55%	59.85%	64.68%	97.72%	98.60%	107.41%	125.16%
클래스 C-E	18.54%	29.38%	59.43%	63.77%	95.47%	95.15%	101.37%	140.37%
클래스 C-P2(연금저축)	18.57%	29.48%	59.68%	64.31%	96.79%	97.16%	104.88%	93.48%
클래스 C5	18.54%	29.38%	59.43%	63.77%	95.48%	95.16%	101.37%	175.40%
클래스 S	18.60%	29.57%	59.89%	64.78%	97.94%	98.93%	107.97%	136.35%
클래스 S-P2	18.61%	29.62%	60.02%	65.05%	98.71%	100.22%	110.30%	150.16%
벤치마크	19.94%	26.56%	60.66%	60.69%	80.31%	79.08%	81.17%	36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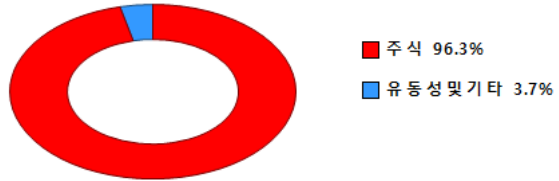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설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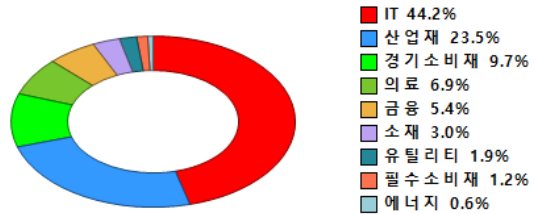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10월말 기준)

<전체>



<주식 업종별>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5년 10월말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20.0
SK하이닉스	전기·전자	12.6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	3.4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오락·문화	3.1
테크윙	기계·장비	3.0

종목명	업종명	비중(%)
하이프	오락·문화	3.0
두산에너지빌리티	기계·장비	2.9
현대로템	운송장비·부품	2.7
효성중공업	전기·전자	2.6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운송장비·부품	1.9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675% (판매 0.9%)
- 클래스 A-E : 총 연 1.175% (판매 0.4%)
- 클래스 C-E : 총 연 1.775% (판매 1%)
- 클래스 C-P2(연금저축) : 총 연 1.425% (판매 0.65%)
- 클래스 C5 : 총 연 1.775% (판매 1%)
- 클래스 S : 총 연 1.125% (판매 0.35%)
- 클래스 S-P2 : 총 연 0.975% (판매 0.2%)

(공통사항)

운용 0.72%, 신탁 0.04%, 사무관리0.01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납입금액의 1.0% 이내
- 클래스 A-E : 납입금액의 0.5% 이내
- 클래스 C-E, C-P2, C5, S, S-P2 :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10월 KOSPI는 전월 대비 19.94% 상승한 4,107.50pt, KOSDAQ은 6.94% 오른 900.42pt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발표되며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부각된 가운데, AI 관련 투자 심리가 지속되고, 한국에서 개최되는 APEC에서의 각국 정상회담 내용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며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더했습니다. 레거시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재차 부각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업종이 시장을 견인했고, 2차전지 관련 업종 및 자동차 업종 또한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되며 유통, 섬유·의복, 음식료 업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월 대비 1.50% 상승한 1,423.2원을 기록했으며, WTI 기준 국제유가는 전월 대비 2.23% 하락한 60.9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동기간 외국인 투자자는 5조 9,350억 원, 기관투자자는 1조 2,100억 원을 순매수했으며, 개인투자자는 6조 7,61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에 따른 전력 수급 타이트로 인한 원전과 전력기기,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확대가 기대되는 반도체 소부장, BTS, 블랙핑크, 빅뱅 등 대형 IP의 복귀가 예상되는 엔터 업종이 긍정적으로 기여한 반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자동차, 인터넷 및 철강 업종의 부족이 성과에는 부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효성중공업, BTS의 투어 재개가 기대되는 하이브,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한 로보티즈 등이 펀드 성과에 긍정적 기여를 하였으나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삼성SDI 등의 언더웨이트 펀드 성과에 부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개별 업종인 의약, 화학, 은행 업종 등을 편입하였고 이를 3분기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전력기기, 증권업종, 방산 등으로 비중 확대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11월 국내 주식시장은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KOSPI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pt를 상회한 가운데, APEC 이후 발표된 글로벌 AI 파트너십 강화 및 산업 협력 기대감이 모멘텀에 힘을 더할 전망입니다.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양호한 3분기 실적 내용 또한 반도체 중심의 증시 상승 흐름을 지속할 요인이며, 이러한 상승세가 2차전지를 포함한 전력 인프라, 소프트웨어 등 관련 섹터로 확산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미국의 현지 투자 요구 및 관세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장기화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과 이에 따른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지연 등은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와 AI 버블 가능성은 시장 상승 속도를 제한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과 반도체 투자 사이클 재개에 힘입어 완만한 상승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국 실물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연준의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완화 여력이 남아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유동성 환경은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반도체 업종 위주의 연간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으며 산업 정책 모멘텀 또한 증시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HBM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존 DRAM을 HBM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Capex Loss로 인해 공급의 병목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DRAM 뿐만 아니라 NAND의 가격 강세 흐름이 26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해당 업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10월까지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중심의 주가 상승이 시장 상승을 주도했다면 SK하이닉스 투자 시점과 맞물려 반도체 소재 및 장비 업종의 주가 탄력도가 높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은 가운데 4분기 중국 유니트리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어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HBM4 밸류체인, ASIC 반도체의 시장점유율 확대,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른 전력 부족 지속 등에 대한 이슈도 시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터투어 업종은 블랙핑크 등 대형 아티스트들의 투어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BTS 등 대형 IP의 복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연 모객수의 확대와 MD 판매 증가는 엔터 업종의 이익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높은 비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의약 업종의 경우 생물보안법 이슈가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바이오텍 중심의 대형 라이선스 아웃이 예상됨에 따라 해당 업종 및 종목을 선별할 계획입니다.

시장의 우려했던 여파로 인해 펀더멘탈 대비 가격 조정이 컸던 업종 및 종목에 대한 비중을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균형감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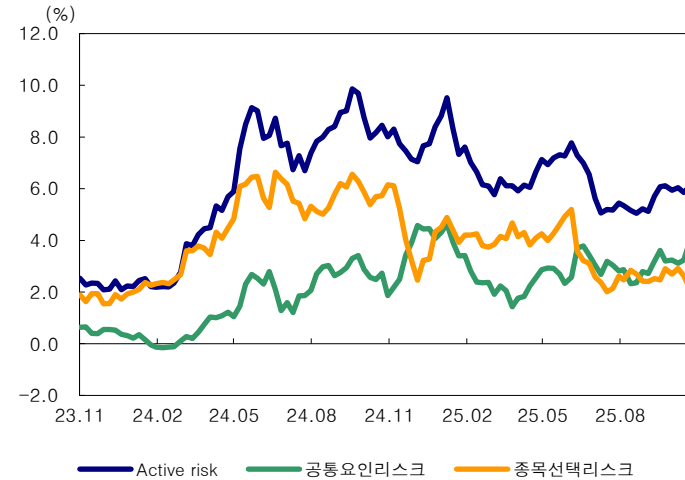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리스크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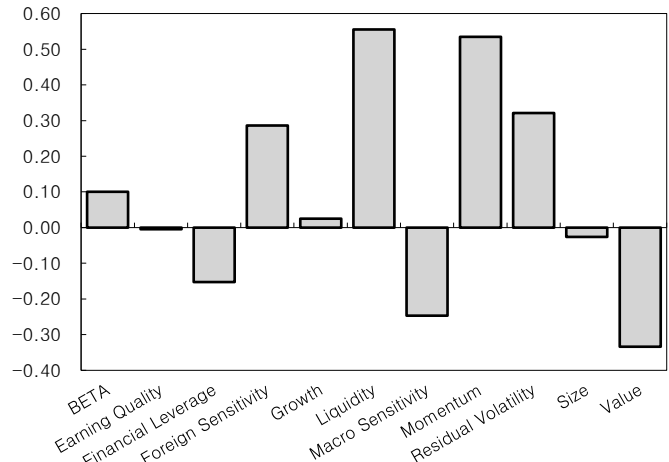
	2025-10-31	2025-09-30
Active Risk ¹	6.10%	6.27%
공통요인 리스크 기여도 ²	3.97%	3.71%
- 스타일 리스크 기여도	2.98%	2.75%
- 섹터 리스크 기여도	0.98%	0.96%
종목선택 리스크 기여도 ³	2.14%	2.56%
베타	1.07	1.00

1. Active Risk는 벤치마크 대비 펀드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으로 공통요인 리스크와 종목선택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Active Risk 수치가 높을수록 펀드가 벤치마크에 비해 적극적으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통요인 리스크는 스타일 및 업종 리스크와 공통요인간의 상관관계로서,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리스크를 의미 합니다.
3. 종목선택 리스크는 경영성과, 노사분규 등과 같은 개별기업의 특수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리스크로서 공통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기업 고유의 리스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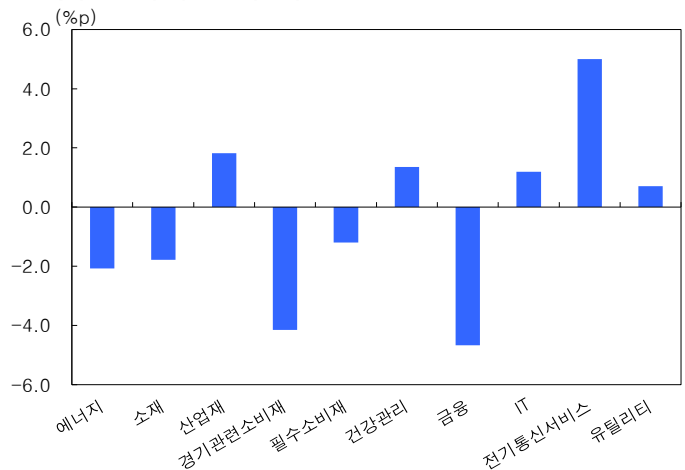
<Active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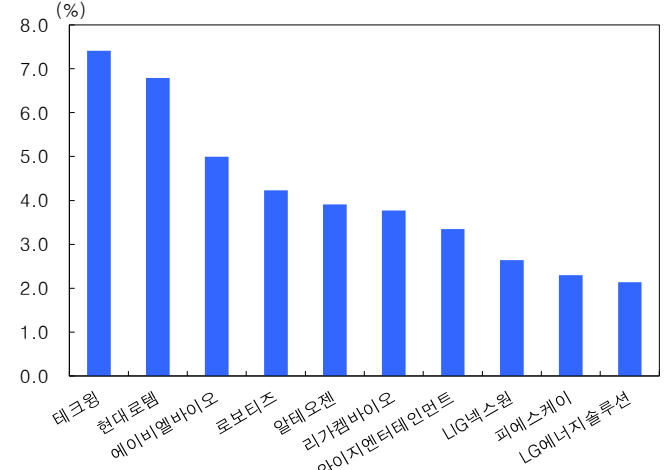
<벤치마크 대비 스타일 비중차>



<벤치마크 대비 섹터별 비중차>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



분석 결과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는 9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10월말 현재, 업종일등증권1[주식] 펀드의 Active Risk는 6.1%로 전월대비 감소하였습니다.
- ▶ 종목수는 전월대비 11개 종목 감소하여, 70개 종목을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성향은 변동이 없었으나, 벤치마크 대비 '경기관련소비재', '에너지' 등의 비중 차이는 증가하였고, '건강관리', 'IT' 등의 비중 차이는 감소하였습니다.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9월말 기준으로는 '현대로템'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상승하였고 '와이즈엔터테인먼트'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하락하였습니다.
- ▶ 종목 선택으로 인한 리스크는 전월대비 감소하였고, 종목집중 위험은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 ▶ 동펀드는 'Value'보다는 'Liquidity'가 높은 스타일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판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